

일부 의대 유급예정 통지 시작 본과 3·4학년 수업출석 늘었다

유급기한 도래... 복귀율 높아져 본과생 의학수업 정상화될 조짐 내년 증원동결 조기확정 가능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함께 의대생 유급 기한이 도래하면서 의과대학 본과 3·4학년을 중심으로 학생 수업 복귀율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전 대통령 파면과 상관 없이 기존 발표한 원칙에 따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본과 1~4학년 학생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이 수업에 복귀했다. 지난주 이 대학 본과 3, 4학년이 수업 거부를 철회하고 복귀하자고 결정한 데 이어 1~2학년도 이날 복귀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도 이날 백브리핑에서 “본과 3, 4학년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돌아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날(7일)을 기준으로 서울대와 다수 의대는 출석일수 미달로 인한 유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 시점이 도래하면 학생이 대거 수업에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이날을 기점으로



지난 1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 /뉴스시

출석 일수 미달로 인한 유급 예정 통지를 추후 내보낼 예정이었다.

의대생 단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주 의대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3, 87%에 불과하다고 밝혔지만, 집계와 달리 본과생을 시작으로 의학 수업이 정상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기 확정될 가능성이 커진 것도 의대생들의 수업복귀 기대감을 높이는 이유다. 당초 정부와 대학은 3월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동결의 조건으로 정

하고 실질 수업 참여율을 파악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면서 무리하게 인원을 늘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해석이다.

서울대를 시작으로 본과생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아래 학년은 물론, 다른 대학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과 1, 2학년도 수업을 각자 흩어져서 듣다 보니 출석율을 체크하기 어렵지만, 본과 3, 4학년 학생들이 돌아오면 아래 학년 학생들도 따라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장애인가정 육아 돕는 ‘홈헬퍼’ 지원

올해 130가구 무료지원 목표
출산준비, 산후조리 보조 등

서울시가 올해도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에 가정 돌봄 헬퍼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홈헬퍼는 장애인 가정에 파견돼 이들의 임신·출산과 자녀 양육을 돕는다. 임신한 여성장애인을 위해 출산 2개월 전부터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관리하고, 출산 준비와 산후조리를 보조한다. 또한 산모가 정서적 안정감을 찾도록 말벗이 되어주기도 한다. 지난 5년간 총 695가구가 홈헬퍼의 도움을 받았으며, 시는 올해 13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녀 양육과 그와 관련된 가사 활동도 지원한다. 만 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등의 외출 업무를 돕고, 학습·독서를 지도 및 놀이, 만 2세 미만 영아를 위해서는 예방접종, 목욕, 기저귀 갈기, 이유식 준비 및 먹이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헬퍼 서비스는 임신·출산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서울시 등록 장애인 가정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에 무료로 제공되며, 이용 신청 등은 서비스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부 모두 장애인인면서 한 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가정이라면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 지원(출산 2달 전)은 월 최대 30시간, 신생아 돌봄(출생 100일 이내)은 월 최대 120시간까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자녀양육 서비스는 100일에서 만 4세 미만 자녀까지는 월 최대 90시간, 만 4세에서 만 9세 미만까지는 월 최대 70시간 제공된다.

현재 홈헬퍼로 112명이 활동 중이며, 시는 추가 지원자도 모집하고 있다. 베이비시터, 산후 도우미,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방과 후 교사 등 출산 및 자녀양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관심 있는 사람은 홈헬퍼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진 기자

경과원, 베트남 전시회서 1150만달러 실적

남양주시 중소기업과 단체관 구성
총 109건 수출 상담... 기술력 입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과 남양주시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025 베트남 하노이 종합전시회’에서 남양주시관을 운영해 약 11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로 34회를 맞은 하노이 종합전시회는 베트남 산업통상부, 투자부, 과학기술부가 공식 후원하는 베트남 북부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박람회다.

18개국에서 약 400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2만여 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았다. 이번 전시회에서 경과원은 남양주시 소재 중소기업 8개사와 함께 단체관을 구성했다. 참가기업들은 부스 임차비와 장치비, 전시품 운송을 위한 편도 운송료 전액과 통역을 제공받았다.

그 결과, 109건의 상담을 진행해 약



‘2025 베트남 하노이 종합전시회’ 남양주시관 모습. /경과원

1150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담 성과와 550만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달성했다.

남양주시관에는 ▲(주)현동인터내셔널(식품) ▲(주)위너스(콘센트 및 스위치) ▲(주)크리세프(주방기기) ▲(주)에어비전(미세먼지 필터) ▲(주)대연(건조대) ▲(주)토포스(무인교통 감시장치) ▲(주)에스케이에프엠(폐기물 감량기) ▲리나스대성(주방기기) 등 총 8개 기업이 참여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프리랜서 표준계약 온라인으로 작성하세요”

서울시, ‘전자계약 서비스’ 제공
200개 사업장에 1년간 무료 지원

직업소개소·요양병원·방문레슨 플랫폼·웹툰 제작사 등 ‘서울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약서 작성, 서명자 본인인증, 대량 문서 관리 등 계약의 보안성과 이용자 편의 기능이 갖춰진 ‘전자계약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8일부터 ‘서울시 표준계약서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종이 계약서 대신 모바일·PC를 활용한 ‘온라인 기반’의 표준계약서로, 시는 최

대 200개 사업장을 선착순 모집해 프로그램을 1년간 무료 지원할 예정이다.

▲간병인협회·직업소개소 ▲요양병원 ▲방문레슨 플랫폼 ▲MCN(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기회사) ▲운동 관련 사업장(헬스·요가·필라테스 등) ▲웹툰 제작사·플랫폼, 서울시 표준계약서 유관 업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전자계약 서비스는 기본적인 계약서 작성 및 교부 기능 외에도 ▲서명자 본인인증 ▲간편 전송 기능(단건, 대량) ▲계약서 발송 시 사업장 상표 추가 ▲팁 단위 문서 관리 ▲외부 프로그램 자동 연동 등 계약 업무의 보안성과 이용자 편의를 모두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부

가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연간 기본 40건까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전자계약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내 지점을 보유한 사업장은 지점 현황이 포함된 법인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520건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내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서울시 표준계약서’ 관련 사업장이라면 세부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단 지점에 따른 추가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지점도 모두 서울시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이현진 기자

서울사이버대, ‘정착지원교육지도사’ 등록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민간자격증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지난 2월 신청한 민간자격증 ‘정착지원교육지도사’ 등록민간자격증이 등록완료(등록번호 2025-001902)됐다고 7일 밝혔다.

정착지원교육지도사 민간자격증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남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사이버대가 만든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다.

정착지원교육지도사 민간자격증은 서울사이버대 재학생이면 모두 신청 가능하며 전공과 무관하게 서울사이버대의 졸업생 또한 시간제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격증 이수에 필요한 과목은 ▲남

북한 사회통합 ▲북한사회 바로알기 ▲북한정치와 경제 ▲분단국 통일사례 등 모두 6개 과목으로 설정돼 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얻게 되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남한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을 실행하고, 남한 국민들의 객관적인 북한사회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직접 수행하게 된다. 단, ‘정착지원교육지도사’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 자격은 아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08 | 해질 / 19:01

4월 8일 (화)
음력 : 3월 11일

수도권 날씨
9 ~ 19°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연천 6/19, 동두천 7/20, 가평 7/20, 파주 5/19, 서울 9/19, 양평 9/19, 인천 8/16, 수원 9/17, 용인 9/17, 평택 8/18, 백령도 6/1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미국 재무장관 “美 관세 따른 경기침체 우려 필요없어”
▲日도요타 2027년까지 15종 전기차 투입...“관세 리스크에 생산거점 확대” /사진 뉴시스

▲‘트럼프에 따지는 남극 펭귄’...무인도 관세에 조롱 밈 확산
▲이시바 “상호 관세는 국난 사태...가능한 빨리 방미”

▲‘오사카 엑스포’ 일주일 앞두고 메탄가스 검출...안전 우려 확산
▲푸틴 특사 “미국·러시아, 이르면 이번 주 다시 회동”